

31대 교회연합SFC 주력운동

Love Letter

31대 교회연합 위원장 박언민

31대 교회연합의 주력운동은 “Love Letter 운동”입니다.

미움과 다툼, 혐오와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무질서한 세상과 달리 거룩함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9)”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요일 3:18). 우리 주위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운동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 함께 운동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Love Letter 운동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비롯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여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써보십시오. SFC로부터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편지로 전해보십시오!

참여방법

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한다.
1.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대상을 생각한다.
2.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편지를 쓴다.
3. 편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Love Letter 활용법!

1. 지방위원들은 각 지방에 속한 교회와 운동원에게 편지를 작성한다.
 - 교회 순회나 여러 모임에 활용해 보세요! :)
2. 교회와 학교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편지를 건네보십시오.
 - 가족을 비롯한 친한 친구들,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전해보십시오.
3. 기념일에 편지를 건네보십시오.
 -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분에게 편지를 전해보십시오.